

전주리사이클링 “늦으면 한달 후 재가동”

‘가스 폭발 사로로 중단’... 하루 평균 230~300t 차량 음식물쓰레기 수거 타시도 업체 통해 위탁 처리

지난 2일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전주종합리사이클링센터 가스 폭발 사고로 전주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가 이번 폭발 사고 원인 규명 및 시설 개·보수 이후 안정성 검증 등을 위해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태 전주부시장이 리사이클링센터 폭발사고 수습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인 태영건설에서 성우건설로 변경된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며 합동감식 결과 사고원인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입원치료 중인 근로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각 병원에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합동감식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설보수 및 재가동과 안전점검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전주시가 주장하는대로 콘소시엄형태로 공동운영을 승인해주었다면 이 시설물이 전주시 소유이고 이와 관련 법적으로는 물론 업무 협약서에도 시의 관리감독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경 승인한 2월 1일 이후 사고 현재까지 콘소시엄이 공동운영 조건에 맞게 제대로 되는지 전주시의 관리 감독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했다.

현재 화상전문치료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근로자 중 2명이 폭발 당시 가스흡입으로 인한 기도사염 치료 상태여서 중증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향후 회복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지난 2월1일자 전주리사이클링센터의 주

사 변경과 관련 지난달 22일에는 운영사 변경 승인과 관련 전주시와 전주리사이클링센터 간 체결한 실시협약 위반사항과 관련 전주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폭발사고 원인이 운영사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의 분감사가 진행될 경우 계약체결 당시 콘소시엄 주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폭발사고로 인해 “하루 평균 전주 시내에서 발생하는 230~300t 차량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타시도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설이 가동 중지된 상태”라면서 “정상 가동은 이르면 열흘, 늦으면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일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고용부가 합동감식을

향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전북 임원 간담회

일시 : 2024. 5. 2. / 장소 : 전주한옥마을 한벽문화관



대한행정사회 향해봉 회장은 지난 2일 오전 전주 한벽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전북지방행정사회 임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앙 및 지방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행정사회 실정 청취·활성화 모색

향해봉 행정사회 회장, 전북 행정사회 임원들과 간담회 가져

대한행정사회 향해봉 회장은 지난 2일 오전 전주 한벽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전북지방행정사회 임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북행정사회의 실정과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방의 활성화를 통한 중앙 및 지방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 청구 대리권 확보 △행정사법 위법 무자격자 단속 강화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덕중 상임고문이 건의한 ‘시도지방행정사회 지원금 월 50만 원(월별 3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대한행정사회의 재정 현안상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했으며, 시군구 지회 운영비 지원 방침과 관련, 배영인 군산지회장, 황의봉 익산지회장이 건의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지원 조건을 5명 정도로 완화” 의견에 대해서는 “정회원 10명이 미치지 않는 시군지회는 인접 2~3개 시군지회를 하나로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간담회에는 전북행정사회 이인형 회장, 김일중 전주지회장, 배영인 군산지회장, 박명수 정읍지회장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전북행정사회 이인형 회장은 개업 사무소 방문, 간담회, 신년회 및 정기총회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회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해봉 회장은 앞으로 3~4년 후에는 지방행정사가 주인이 되는 행정사 시대가 올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간 소통 강화, 행정사 업무 수호 및 확대 노력, 대외협력 강화 등을 통한 시도 행정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향해봉 회장은 “지방 행정사회가 중심이 되는 행정사 시대를 위해서는 행정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언론홍보 도민 홍보 강화, 마을 행정사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효자3동에 후원물품 전달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회장 장석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7일 효자3동(동장 양승운)을 방문해 후원물품(김치 40박스 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김치나눔 행사는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이 300만원을 쾌척하고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장을 비롯한 청년회 40여명이 동참하여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버무려서 담근 김치를 독거 어르신 40가정에 전달하여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김치를 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내다보니 김치 담그기도 힘들고 늘 반찬이 없어서 식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장석희 회장은 이번 행사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나눔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우리들의 마음, 끈 행복한 마음 자체를 나누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변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쿠뮤필름스튜디오 제2스튜디오 전주에 건립

전주 건립 투자 양해각서 체결... 대상 부지 방문제 현황 청취·투자 여건·필요 조건 등 확인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가 전주에 제2스튜디오를 건립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는 매년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에는 영화제작사와 종합촬영소, 후반제작시설 등 영화 촬영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현재 구축 중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과 K-Film 버추얼 스튜디오 등에 이어 글로벌 영화 촬영소도 들어서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는 7일 전라감영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피터 유(유성환) 쿠뮤필름스튜디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 제2 스튜디오 전주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투자 양해각서는 △쿠뮤필름스튜디오 제2스튜디오 전주 건립 △조명·무대의상·소품·인테리어·엑스트라 공급 등 관련 기업 유치 △전주 영화·영상 등 콘텐츠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피터 유(유성환)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 대표는 “영화·영상산업 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는 7일 전라감영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피터 유(유성환) 쿠뮤필름스튜디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 제2 스튜디오 전주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에 대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적극적인 모습에 진심을 느꼈으며, 이번 투자 양해각서를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전주시 영화·영상산업을 세계화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 돕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전주 투자가 이루어지고, 제2 스튜디오가 건립되면 전주

시 영화·영상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전주 투자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의 중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협력 3자 협약

전주시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제·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시전대협,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지원담당기관과 손을 잡았다.

전주시는 7일 복지환경국장실에서 조덕현 전주시 부총장과 전숙영 전대협 특자도 자립지원담당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의 후원 및 상담·진로체험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와 심

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세 기관의 공감대 속에 마련됐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앞으로 △전주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상호협력 및 홍보연대 △전주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연계 및 상담지원 △그 밖의 시정의 발전과 세 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시는 전주시전대협과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지원담당기관과 연계해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